

19세기 대축척조선전도의 제주도 하천 묘사 변화 연구*

—『대동여지도』(1861)를 중심으로—

A Study on Jeju Island River Channels in Large-scale Old Maps in 19th Century*

-Focusing on 『Daedongyeojido(大東輿地圖, 1861)』-

김 기 혁(Kihyuk Kim)**

요약: 이 연구는 19세기 제작된 대축척조선전도의 제주도 지도에 묘사된 하천 유로와 지명의 비교 분석을 통해, 18세기의 20리방안 군현지도부터 19세기의 필사본 조선전도를 거쳐 (목판본)『대동여지도』로 이행되면서 나타난 지리 정보의 편집 과정을 파악하였다. 하천 유로와 기재 지명을 볼 때 이를 지도는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째 유형은 제주도에 20곳 내외의 유로와 4곳에 지명이 기재된 지도이다. 이에는『조선팔도지도』와『청구도』가 해당된다. 둘째 유형은 30곳 내외의 유로가 그려지고 그 중 4곳에 지명이 기재된 지도로『동국팔로분지도』와 (필사본)『대동여지도』가 속한다. 셋째 유형은 유로 수는 둘째 유형과 유사하나 지명이 14곳에 기재된 지도이다. 이에는『동여도』와『대동여지도』가 속한다. 『대동여지도』에 추가된 하천 지명은 대부분 지리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필사본)『대동여지도』가 목판본 지도와 유사한 것은 이 지도가 책자식에서 분첩식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임을 보여준다. 『대동여지도』가 이전 지도에 비해 하천 내용이 상세해지는 것은 사회에서 실용성을 추구하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조선팔도지도』,『동국팔로분지도』,『청구도』,『동여도』, 김정호, 신경준, 20리방안지도

Abstract : In this study, the changes of river channels and geographical names of Jeju Island on large-scale old maps in the 19th century based on 20-ri grids were analyzed in order to understand how geographical information is edited from manuscript to wooden-plate edi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es revealed three types of maps. On the type of 『Joseonpaldojido(朝鮮八道地圖)』 and 『Cheonggudo(青邱圖)』, about 21 channels were described with 4 river names. On the other type, such as 『Donggukpalrobunjido(東國八路分地圖)』 and 『Daedongyeojido (manuscript, (筆寫本大東輿地圖)』, about 30 channels with 4 river names were described. On the third type, such as 『Dongyeodo(東輿圖)』 and 『Daedongyeojido (木板本大東輿地圖)』, 14 river names were written. Most of names added on those maps were based on the historical geography. Those differences were the result of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of river channels in the process of editing and change of binding systems. Among old maps, 『Daedongyeojido(manuscript)』 which is compiled by 18 folders, has the key role in the development of maps. River channels on this map were described on 『Dongyeodo』 with added river names. 『Daedongyeojido(wooden)』 based on 『Dongyeodo』 was made to share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widely in the society. **Key words :** 『Joseonpaldojido』, 『Donggukpalrobunjido』, 『Cheonggudo』, 『Dongyeodo』, Jeongho Kim, Gyeongjun Shin, 20-ri grid maps

1. 들어가면서

1) 연구 배경과 목적

1861년(철종 12)의 『대동여지도』는 조선시대 지도

발달의 정점에 있을 뿐 아니라 18~19세기 동아시아에 서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중국에서는 1719년(康熙 18) 전체 강역을 경위선 위에 그린 동판본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 약 1:400,000, 8매도)가, 1728년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 S1A05A2A01024762).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khkim@pusan.ac.kr)

(擁正 6)과 1760년(乾隆 25)에 『황여전도』가 각각 10배도, 13배도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이를 지도는 마테오리치((Matteo Ricci, 1552-1610)의 『곤여만국전도』(1602) 이후 수용된 유럽 선교사들의 지도 제작 기법이 바탕이 된 것이다(김기혁 2015).

일본은 1774년(安永 3)에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1717~1801)가 방안식 경위선이 그려진 「일본여지노정전도」(日本輿地路程全圖)를 제작하고 1779년(安永 8) 개정판을 발행하면서 지도 발달의 전기를 이루었다. 이를 지도가 비교적 소축척지도인데 반해 이노 타다타카(伊能忠敬, 1745~1818)는 10차에 걸친 실제 측량을 바탕으로 1821년(文政 4) 일본 전역을 그린 「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 이하 「이노지도」)를 제작하였다. 「대도」(大圖, 1:36,000, 214매)와 「중도」(中圖, 1:216,000, 8매), 「소도」(小圖, 1:432,000, 3매)로 구성된 이 지도는 일본 근대 지도의 바탕을 이루었다(渡辺一郎·鈴木純子 2010).

조선은 1770년(영조 46) 신경준(申景濬, 1712~1781)이 영조의 명을 받아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군현지도를 제작하였다. 전국을 아우르는 20리 크기의 정방형 방안을 구성하고, 330여개의 고을 지도를 동일한 축척으로 그렸으며, 이와 함께 도별도와 전국도를 제작하였다. 그의 「여암유고」에 수록된 ‘주척 1촌을 1선(20리)으로 하였다.’라는 기사 내용¹⁾은 지도 축척이 1:216,000임을 보여주며(김기혁 2007), 이는 일본의 「이노지도」 중 「중도」(中圖)의 축척과 일치하는 것이 주목된다. 20리방안의 군현지도에 담긴 지리정보는 19세기에 제작된 필사본 대축척조선전도의 근간이 되었고, 1861년 김정호가 이를 지도의 내용을 편집하여 목판본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다(김기혁 2007).

동아시아 삼국에서 제작된 이들 지도들의 사회 보급은 서로 다르게 전개되었다. 중국의 『황여전람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일찍 동판본으로 만들어졌으나 지도 이용은 황실을 중심으로 제한되었고 일반 보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의 「이노지도」는 채색필사본으로 제작되었으나 지금은 소실되어 복제본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동경국립박물관 2003). 이에 반해 조선의 『대동여지도』는 현재 국내·외 도서관과 박물관에

약 50여점 이상의 완질본이 남아 있고, 색채와 체재 등이 서로 다른 것을 볼 때 당시 사회에 널리 보급되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대동여지도』에 대한 지식은 1925년 최남선이 『동아일보』(10.8·9일)에 ‘古山子를 懷함’ 기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1910년에 그는 조선광문회를 결성한 이후 조선 지도에 대한 기사를 꾸준히 발표하였고, 1914년에는 『대동여지도』를 포함한 규장각 도서, 활자, 고문서 등의 조선 문화 유산들을 도쿄 다이쇼박람회(大正博覽會)에 출품하였다. 그의 이와 같은 노력은 지도를 통해 조선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하여 초라한 조선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이기훈 2008). 동아일보의 기사는 『대동여지도』 지식이 사회로 보급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 내용이 과장되고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회가 공감한 것은 이 지도에 일본 식민지로 전락한 국토 모습의 원형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대동여지도』는 한국 고지도의 백미로 인정받으면서 단순한 지도 소개에서 벗어나 김정호 인물, 지도 제작 기법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1980~1990년대 들어 전통문화의 인식이 높아지고 박물관과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군현지도와 『청구도』 등이 공개되면서 이들 지도와 『대동여지도』의 관계가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8세기 제작된 20리방안의 군현지도는 19세기 대축척조선전도의 바탕이 되었으며, 『대동여지도』는 이들 지도의 내용을 편집하여 목판본으로 완성된 것임이 밝혀졌다(양보경 1995).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지도학적인 내용에 중심을 두었으며, 지리정보의 편집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만 진행되었다. 특히 『대동여지도』에 표현된 독특한 산천 묘사의 원인과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대동여지도』의 산줄기 묘사를 보면 백두산 천지에서 시작된 백두대간이 지리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추자도를 거쳐 제주도 한라산까지 끊어 있다. 대간에서 갈라진 정맥과 정간, 지맥들은 국토를 아우르며 예외 없이 모두 이어져 있으며, 산줄기 사이에는 빠짐없이 물길이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이 산수가 치밀하게 결합

표 1. 분석 고지도

| 유형 | 지도 | 소장처 | 시기 | 체제 및 유형 |
|----------|--------------|-----------------|----------|-------------|
| 군현지도 | 『지도』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 | 18C | 20리방안 군현지도 |
| 도별도 | 『조선팔도지도』 | 규장각(고병912.51- | 18C | 신경준형 도별도 |
| | 『동국팔로분지도』 | 성신여대 박물관 | 1784 | 신경준형 도별도 |
| 대축척 조선전도 | 『청구도』 | 규장각(고4709-21) 외 | 1834년 | 2책·4책(총29종) |
| | (필사본)『대동여지도』 | 국립중앙도서관 | 1850년 전후 | 총18첩 |
| | 『동여도』 | 규장각 외 | 1860년 전후 | 총23첩 |
| | 『대동여지도』 | 국사편찬위원회 외 | 1861년 | 총22첩(목판본) |

된 모습으로 인해 하천 유로 내용은 실제와 다르게 그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조선의 전통적인 자연관을 완벽하게 표현하려는 시도의 결과였으며 다른 지도에서 구현하기 못한 『대동여지도』만의 독특성이다.

전통사회에서 산과 물은 민중들이 기대어 살던 곳으로, 지역의 인식은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풍수 사고로 체계화되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고지도에서 고을 모습이 풍수 형국으로 그려졌다. 옛지도에서 산은 독립된 봉우리, 혹은 산줄기 모습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그려진다. 이는 산지 인식의 방법 차이에 서 비롯된다. 이와 다르게 하천은 일관되게 선(line)의 형태로 표현된다. 흐름이 끊어진 것은 물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 농경사회에서 물길은 일상과 직결되어 있는 자원으로 다른 정보에 비해 정확성을 지향한다. 이는 고지도에 그려진 하천정보는 다른 요소에 비해 지도의 편집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동여지도』 수록된 전국 하천 지명은 1,300개로 이전의 『청구도』(1834년, 890곳)에 비해 410곳이 증가하였다. 전체 지명수가 『청구도』에 비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이 오히려 증가한 것은 지도를 제작하면서 이를 중시하며 정보를 편집하였음을 보여준다. 유로가 비교적 단순한 제주도의 경우 『대동여지도』에는 30곳의 유로와 14곳의 지명이 기재되어 있어 이전의 『청구도』에 비해 훨씬 자세하고 유로 표현도 상세하다(표 2. 참조).

제주도는 조선 전기부터 자세한 고지도가 제작되었고, 후기 들어서는 육지보다 훨씬 앞서 상세한 지방지도가 만들어졌다(오상학 2004). 이들은 지도학적 측

면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역사지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주도 하천이 독특한 경관을 보이고, 제주도민의 삶에서 물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드물다. 조선 후기 지방지도 3종과 정상기의 『동국지도』, 『청구도』의 유로 묘사의 비교를 시도한 이찬 선생(1979)과, 17~18세기의 지방지도와 군현지도에 그려진 하천의 비교를 통해 지도의 계열을 분석한 김기혁(2018)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지도가 지리정보의 편집된 결과물임을 비추어 볼 때, 『대동여지도』의 제주도에 그려진 하천은 목판본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리정보 편집 내용의 일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8세기 군현지도와 도별도, 19세기의 필사본 대축척조선전도, 목판본 『대동여지도』에 표현된 제주도 하천 유로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도 제작 과정에서 지리 정보가 편집되는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동여지도』를 지도학적인 내용만으로 제작 과정을 밝히려했던 종래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고지도는 표 1과 같다. 18세기 제작된 군현지도 중 20리방안의 지도책으로는 『조선지도』·『팔도지도』(규장각), 『해동여지도』(국립중앙도서관), 『여지도』(고려대도서관), 『지도』(장서각)가 있다. 전라도편에 속해 있는 제주도 지도는² 14×10개의 방안위에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이 추자도와 함께 그려져 있다. 각 판본에 묘사된 내용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회화 수준이 가장 높은『지도』(장서각)를 이용하였으며,『해동여지도』를 보완자료로 이용하였다³⁾.

도별도로는 기존 연구(이기봉 2008)에서 신경준 계열 지도로 확인된『조선팔도지도』(규장각)와『동국팔로분지도』(성신여대)를 대상으로 하였다.『조선팔도지도』는 12쪽으로 구성된 병풍지도로, 제주도는 전라도의 육지 해안 가까이에 묘사되어 있다.『동국팔로분지도』는 8첩으로 구성된 도별도이다. 표지에 ‘甲辰孟春’가 쓰여 있어 1784년에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첨부된「동국여지도범례」에는 지도 편찬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 위치는『조선팔도지도』에 비해 실제와 유사하며 부속 도서의 표현도 자세하다.

19세기의 만들어 필사본 대축척 조선전도로는『조선도』(일본오사카부립도서관),『동여』(국립중앙박물관),『청구도』(규장각본 외),(필사본)『대동여지도』(국립중앙도서관),『동여도』·『대동방여전도』(규장각)가 있다. 이들은 크기와 체제, 채색이 다르나 모두 방안도 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중『동여』,『조선도』와『청구도』의 경우 제주도 내용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산지가 줄기로 묘사된 규장각 소장의『청구도』(고4709-21)를 이용하였다.

(필사본)『대동여지도』는 18첩으로 구성된 조선전도이다. 1843~1859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장진숙·김기혁 2014)『청구도』(1834)와『대동여지도』(1861)의 중간 단계에 해당된다.『동여도』는 23첩으로 구성된 지도로 현재 규장각, 국사편찬위원회, 서울역사박물관에 3본이 남아 있으며 목판본『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 필사로 제작한 선행 지도로 알려져 있다(이상태 1999; 이기봉 2005). 제주도 내용은 동일하며, 본 논문에서는 규장각본을 이용하였다. 22첩으로 구성된『대동방여전도』는『대동여지도』와 동일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대동여지도』의 경우 신유본 중 채색되어 있지 않은 국사편찬위원회본(이하『대동여지도』)을 이용하였다. 한편 19세기에 제주도를 그런 지방 지도로『1872년군현지도』를 비롯하여 읍지의 부도(附圖)가 적지 않게 있다. 이들 지도의 내용은 대부분 18세기에 그려진 지방지도 계열에 속하여 본 연

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제주도 지리지에는 하천의 위치와 지명과 관련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전기의『신증동국여지승람』(이하『승람』)과 후기의『동국문헌비고』중『여지고』,『탐라지』,『대동지지』의『산천조』에 수록된 하천 기사를 지도에 기재된 지명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선 후기의 지리서인『여지도서』의 제주도는 19세기 후반의 내용을 담은「보유」편에 속해 있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지도에 기재된 지명의 위치는 현지답사와 함께 오름은 오창명(2008), 하천 지명은 김기혁(2018)을 바탕으로 비정하였다. 논문 서술에 사용한 오름 지명은 제주특별자치도(1997)를, 하천 지명은 국토교통부(2011)를 기준으로 삼았다.

2.『대동여지도』의 하천 묘사

1) 지도의 구성

『대동여지도』에 묘사된 제주도의 산줄기와 오름, 포구와 하천 유로는 그림 1과 같다. 지도 중앙에 한라산과 백록담이 배치되고, 이를 중심으로 산줄기가 사방으로 해안까지 이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사미악(思美岳, 세미오름)-개역악(開域岳, 백약이오름)-대랑수악(大郎秀岳, 다랑쉬오름)을 거쳐 수산봉수로 이어지며, 서쪽으로는 병악(並岳, 대병악)을 지나 명월진의 판포(板浦, 미상) 봉수로 연결된다. 이들 동-서를 잇는 산줄기는 제주도를 남과 북으로 가르며 제주목과 정의·대정현의 경계를 이룬다.

한라산 북쪽으로는 봉개악(奉蓋岳, 봉개오름)-원당악(元堂岳, 원당봉), 반응악(盤凝岳, 반능오름)-서산(西山, 서우봉) 봉수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그려져 있고, 북서쪽으로는 고고산(高古山, 노꼬매)을 거쳐 엄장포로 연결되는 산지가 있다. 남쪽으로는 백록담에서 고근산(孤根山) 서쪽을 지나는 줄기가 정의현과 대정현의 경계를 이룬다. 정의현에는 한라산에서 성판악(城板岳)과 녹산(鹿山, 대록산), 성불악(成佛岳, 성불오름)을 거쳐 읍지로 이어지는 줄기와 수영악(水靈岳, 물영아리)을 거쳐 토산봉으로 연결되는 산지가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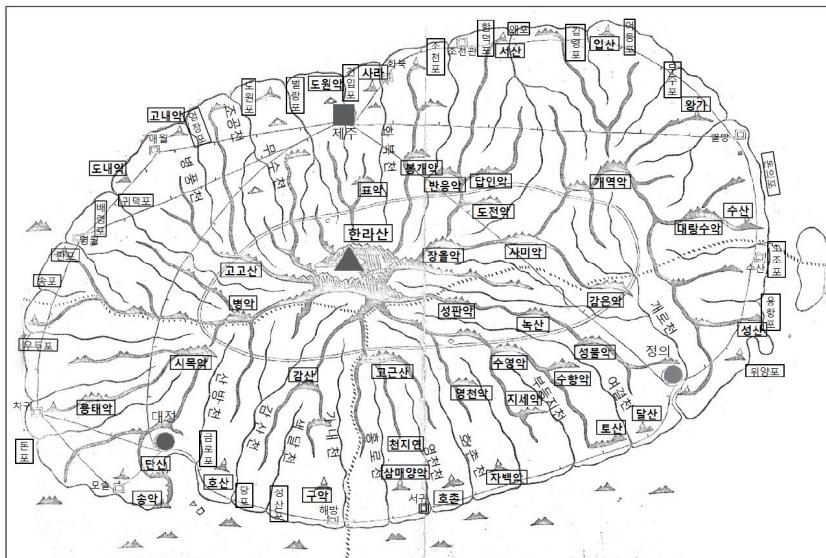


그림 1. 『대동여지도』 제주도에 묘사된 주요 오름, 하천 및 포구
(원도의 지명을 삭제하고 주요 지명만을 기재한 것임)

대정현에는 병악에서 읍치를 거쳐 단산(簞山, ‘簞山’으로 표기 오류)으로 이어지는 줄기가 있다. 이들 산줄기에서 갈라진 지맥들은 해안 포구까지 이어져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예외없이 하천 유로가 묘사되어 있다.

점선으로 묘사된 군현의 경계는 대부분 산줄기와 하천을 따라 그려져 있으나 정의현을 흐르는 개로천의 상류 유역(현재 조천읍 교래리 일대)은 제주목에 속해 있다. 도로는 제주목 읍치를 중심으로 정의·대정현 읍치와 별방진, 애월진 등 주요 진보를 연결하고 있으며, 해안과 방진을 연결하는 경로가 별도로 묘사되어 있다.

표 2는『대동여지도』제주도에 수록된 지명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 170개 지명 중 산지 지명이 37곳(21.8%)으로 가장 많고, 포구와 섬은 24곳(14.1%)에 기재되어 있다. 하천 지명(못 포함)은 20(11.8%)곳이다. 인문지명으로는 봉수 지명이 21곳(12.4%)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봉수는 대부분 해안에 있는 오름에 묘사되어 있다. 이를『청구도』와 비교하면 추가 기재된 49곳 지명 중 산지와 하천 지명이 각각 20곳, 14곳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인문 지명에서는 촌(村)을 비롯한 방리 지명이 8곳으로 증가하여 비중이 높아졌으나, 다른 지명의 경우 대부분 줄어들었다.

2) 하천

『대동여지도』에서 해안으로 유입하는 유로는 30곳이 그려져 있으며 이 중 지명이 기재된 하천은 14곳이다. 유로 형태는 정의현의 개로천(현 천미천)을 제외하고 매우 단순하게 그려져 있으며 하구에 포구 지명이 기재되어 있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위치 비정이 가능하다.

(1) 제주목

제주목에는 14곳의 포구로 유입하는 유로가 그려져 있고 이 중 4곳에 화북천, 무수천, 조공천, 병풍천 지명이 있다. 화북천(禾北川)은 한라산 북쪽 산록에서 발원하여 봉개악을 지나 제주 읍치 동쪽의 화북진을 지나 바다로 유입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지금도 사용되는 지명이다. 무수천(無愁川)은 한라산 북쪽 산록에서 발원하여 조공천으로 합류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지금의 광령천에 해당된다. 조공천(朝貢川)은 고고산(高古山) 동쪽 산록에서 발원하여 무수천을 합류하여 도원포(島圓浦) 일대에서 해안으로 유입한다. 지금의 도근천이다. 병풍천은 고고산 산록에서 북쪽으로 흘러 엄장포로 유입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엄

표 2. 『대동여지도』 제주도 지명(괄호안은 전체 대비 %)

| 지명 유형 | 『대동여지도』 | 『청구도』 | 차이 |
|--------|---------------|-------------|----------|
| 전국 전체* | 11,247(100.0) | 13,296 | -2,049 |
| 산 지 | 2,656(23.6) | 2,617(19.7) | 39 |
| 하 천 | 1,300(11.6) | 890(6.7) | 410 |
| 제주도 전체 | 170(100.0) | 121(100.0) | 49 |
| 자연지명 | 산 지 | 37(21.8) | 17(14.0) |
| | 포 구 | 24(14.1) | 20(16.5) |
| | 섬 | 24(14.1) | 23(19.0) |
| | 하천·못 | 20(11.8) | 6(5.0) |
| | 고 개 | 1(0.6) | 0(0.0) |
| 인문지명 | 읍 치 | 3(1.8) | 3(2.5) |
| | 진 보 | 11(6.5) | 10(8.3) |
| | 봉 수 | 21(12.4) | 18(14.9) |
| | 방리(촌) | 12(7.1) | 4(3.3) |
| | 목 장 | 11(6.5) | 10(8.3) |
| | 창 고 | 3(1.8) | 2(1.7) |
| | 역사지명 | 1(0.6) | 0(0.0) |
| | 기 타 | 2(1.2) | 8(6.6) |
| | | | -6 |

* 자료: 임종옥·김기혁(2010)에 의거 재구성

장포가 지금의 구엄리 일대인 것으로 볼 때 지금의 고성천을 묘사한 것이다.

지명이 기재되지 않은 9곳의 유로 중 읍성 내부를 흐르는 하천은 현재 산지천 유로이다. 제주목 서쪽에 묘사된 3곳의 유로 중 벌랑포로 유입하는 하천이 있다. 벌랑포는 지금 제주시 삼도동과 용담2동 사이에 있던 포구로 보아(고광민 2003) 지금의 한천에 해당된다. 귀덕포로 유입하는 유로는 현재 한림읍 귀덕리 지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애월읍과 한림읍의 경계를 이루는 금성천을 그린 것이다. 명월진성에는 병악에서 발원한 두 개의 유로가 마두포 일대에서 합류하여 바다로 유입한다. 북쪽 유로는 한림천이며, 남쪽 하천은 판포봉수 북쪽에서 흐르는 것으로 보아 지금의 응포천을 그린 것이다. 명월진 남쪽에 송포(松浦)로 유입하는 유로가 그려져 있으나 현재 지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읍치 동쪽에 묘사된 5곳의 유로는 각각 조천포, 왜포, 김령포, 무주포, 별방진 해안으로 유입하고 있다. 이중 조천포로 유입하는 하천은 조천읍 신촌리 일대를 흐르는 소하천인 벼으내, 왜포를 흐르는 유로는 지금 조천읍 북천 포구 일대에서 바다로 유입하는 명중

내로 추정된다. 이외의 다른 유로는 지금 하천 유로 지명이 없어 정확한 위치 비정이 불가능하다.

(2) 정의현

정의현에는 9곳에 하천 유로가 그려져 있으며, 개로천, 여결천, 부등지천, 호촌천, 영천천, 홍로천 6곳의 지명이 있다. 개로천(蓋老川)은 지금 제주도에서 유로가 가장 긴 천미천을 그린 것으로 지도에서는 유일하게 3차수 하천으로 묘사되어 있다. 한라산 동부의 개역악(開域岳), 부인악(夫人岳, 동검은이오름)과 장을악(長兀岳, 장오리오름), 거은굴(巨隱窟, 위치 미상) 산록의 4곳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정의현 읍치를 감싸고 흘러 남산봉수 일대에서 바다로 유입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여결천(餘結川)은 한라산 성판악 일대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달산봉수 서쪽에서 바다로 유입한다. 지금 표선면에서 토산봉수와 달산봉수 사이에서 바다로 유입하는 가시천으로 추정된다. 부등지천(不等之川)은 한라산 동남쪽의 수영악(水靈岳) 일대에서 발원하여 지세악(地稅岳)을 지나 의귀촌(衣貴村)

부근에서 바다로 유입한다. 지금의 남원읍 의귀리 동쪽을 흐르는 의귀천을 그린 것이다. 호촌천(狐村川)은 한라산 남쪽에서 발원하여 정방연(正方淵)을 지나 호촌봉수와 동쪽의 자배악(自盃岳)봉수 사이에서 바다로 유입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대부분의 지리지에 수록된 지명으로 위치도 '西 50~55리'로 서술되어 있다. 호촌봉수가 지금의 예촌봉인 것으로 보아 남원읍 서쪽을 흐르는 신례천으로 추정된다⁴⁾.

영천천(靈泉川)은 한라산 남쪽의 고근산(孤根山) 산록에서 발원하여 천지연(天池淵)을 지나 서귀포진 동쪽에서 바다로 유입한다. 지금의 효돈천 유로를 그린 것이다. 대부분 지리지에 수록되어 있는 지명으로 『대동지지』에서는 '西 60리'로 위치가 서술되어 있다. 지금 '영천' 지명은 남아 있으나 효돈천의 지류 지명으로 사용된다. 당시 영천천 지명은 두 유로를 모두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 본류가 효돈동 마을 이름을 이용하여 '효돈천'으로 명명되면서, '영천천'은 지류 지명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홍로천(洪爐川)은 한라산 산록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삼매양약 서쪽의 범섬 일대에서 바다로 유입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 하천은 지금의 동홍천을 그린 것으로 보이나 삼매양약, 천지연의 묘사가 실제 위치와 다르다.

지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로 중 자배악(自盃岳) 동쪽에서 바다로 유입하는 하천이 그려져 있다. 지금의 자배봉수 동쪽을 지나 남원읍 중심 일대에서 바다로 유입하는 서중천을 그린 것이다. 이 외에 동쪽의 수산진 오조포(吾照浦)로 유입하는 유로는 소하천인 고수천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하지 않다. 용항포(龍項浦)에 유로가 그려져 있으나 위치 비정은 불가능하다.

(3) 대정현

대정현에는 7곳의 유로가 그려져 있으며 그 중 지명이 기재된 하천은 가내천, 색달천, 감산천, 산방천 4곳이다. 가내천(加內川)은 한라산 남쪽에서 발원하여 구악(龜岳)을 지나 해방진(海防鎮) 동쪽에서 바다로 유입한다. 이는 도순천(일명 강정천)을 그린 것이다. 이들 두 하천은 지금 구산봉과 범환동 사이를 흐른다.

색달천(塞達川)은 한라산 남쪽의 감산(紺山) 일대에서 발원하여 성산포(星山浦)에서 바다로 유입한다. 지금의 색달천 유로와 동일하며 지명은 유역의 색달 마을에서 비롯되었다.

감산천(甘山川)은 한라산 산록의 2곳에서 발원하여 종류에서 합류한 이후 남쪽으로 흘러 호산(蠻山)봉수와 동쪽의 당포(唐浦) 사이에서 바다로 유입한다. 호산봉수는 지금 감산리의 월라봉이다. 현재 이 봉수가 예래천의 서안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지금의 예래천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명에 사용된 '감산'은 창고천 유역에 있는 마을 지명이며, 유로도 대정현에서 가장 길게 묘사된 것으로 보아 창고천을 그린 것이다.

산방천(山房川)은 한라산 서남쪽의 병악(并岳)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대정현 읍치와 금로포(金露浦) 사이에서 바다로 유입하는 유로로 묘사되어 있다. 금로포는 안덕면 사계리에 있던 포구이고, 호산 봉수 서쪽에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지금 화순항 일대로 유입하는 창고천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로가 실제 보다 매우 짧게 그려져 있어 사계리 일대의 소규모 물길을 그린 것으로도 추정된다.

대정현 서쪽 해안에는 돈포(敦浦), 차귀(遮歸), 우두포(牛頭浦)로 유입하는 하천이 그려져 있으나 지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곳은 하계망 형성이 미약하여 소하천으로 관리되는 유로도 드문 곳이다. 그러나 현지 답사 결과 소하천인 앞내창외에 대정읍의 사계리, 일과리를 비롯한 해안 지역에 바다로 유입하는 여러 유로가 형성되어 있었다. 지도에서 이들 유로를 그린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위치 비정은 불확실하다.

3. 18세기 군현지도·도별도의 제주도 하천

1) 20리방안 군현지도: 『지도』

『지도』(그림 2)의 제주도는 이전에 지방에서 그려진 지도와는 다르게 북쪽으로 정치되었으며, 전라도 육지의 남단이나 일본, 중국의 지방 묘사는 생략되었다. 중앙에 한라산과 백록담을 실경으로 묘사하고, 청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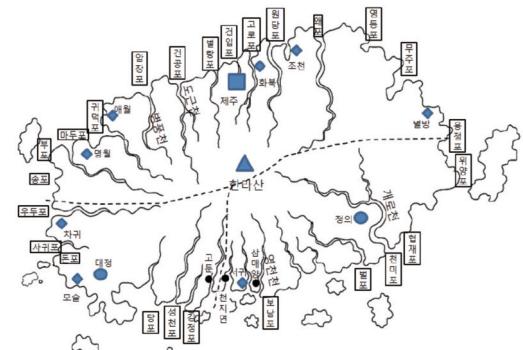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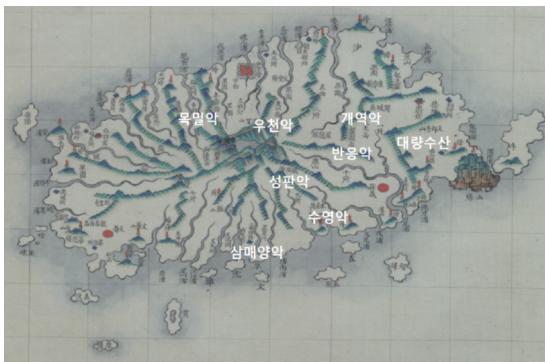


그림 2. 『지도』(군현 경계 가필)

색으로 채색된 산줄기가 해안까지 이어져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일부 산줄기는 끊어져 있으나 대부분 한라산에서 주요 오름을 거쳐 해안의 봉수대나 진보로 이어져 있다. 한라산 동쪽 산줄기에는 대량수악, 개역악, 반응악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서쪽 산줄기에는 오름 지명이 없으며 동남쪽에 수영악이 있을 뿐이다.

지도에 묘사된 22곳의 유로 중 4곳에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제주목에는 9곳의 유로 중 도근천, 병풍천 2곳에 지명이 있다. 도근천(都近川)은 한라산 서쪽 산록의 어승생악에서 발원하여 목장 제4소(四所)를 거쳐 건공포(乾貢浦)로 유입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현재 도근천에 해당된다. 암장포(岩壯浦)로 유입하는 병풍천(屏風川)은 지금의 고성천이다.

지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로 중 제주목 읍치에서 성곽 내부를 흘러 건입포(健入浦)로 유입하는 하천은 지금의 산지천이다. 읍치 서쪽 해안의 벌랑포(伐浪浦)로 유입하는 유로는 한천이며, 애월진 서쪽의 귀덕포(皈德浦) 일대 유로는 금성천, 명월진 남쪽의 하천은 웅포천이다. 읍치 동쪽의 화북소(禾北所)의 고로포(古老浦)로 유입하는 유로는 화북천, 원당포(元堂浦)의 유로는 삼수천에 해당된다. 왜포(倭浦)에 그려진 유로는 서쪽에 서산봉(西山烽)이 그려진 곳으로 보아 소하천인 명중내이다. 왜포 동쪽으로는 하천 유로가 묘사되어 있지 않다.

정의현에는 7곳의 유로가 그려져 있으며 이 중 개로천과 영천천 2곳에 지명이 있다. 개로천(蓋老川)은 지금의 천미천이며, 영천천(靈泉川)은 영천을 지류로

삼는 효돈천에 해당된다. 지명이 없는 유로 중 개로천 서쪽에서 벌포(伐浦)로 유입하는 하천은 달산봉(達山烽) 서쪽을 흐르는 것으로 보아 의귀천으로 보인다. 의귀천 서쪽에 있는 ‘狐材烽(狐村烽의 오기)’을 중심으로 2개의 유로가 나란히 유입하고 있다. 이 중 수영악에서 발원하여 동쪽에서 바다로 유입하는 하천은 신례천 혹은 종남천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촌봉이 지금의 예촌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때 서쪽에 그려진 하천은 지금의 효돈천으로도 추정될 수 있다.

삼매양악(三每陽岳, 삼매봉) 동쪽 해안에 그려진 하천은 당시 홍로천으로 지금의 동홍천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서귀진 일대에 유입하는 유로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하면 보목천으로도 비정이 가능하다. 천지연으로 유입하는 하천은 연외천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귀포 일대의 삼매양악 등은 지금과 매우 다른 위치에 그려져 있어 정확한 위치 비정을 어렵게 한다. 이는 당시 이 일대의 지리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정현에는 6곳의 포구로 유입하는 하천이 묘사되어 있으나 지명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전의 지방지도를 바탕으로 유로를 추정하면, 천지연 서쪽에 그려진 유로는 연외천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유역에 고둔촌 지명이 있고 20리방안지도의 다른 판본인 『해동여지도』(국립중앙도서관)에 이 유로가 대정현에 속해 있어 지금의 악근천을 그린 것으로 판단된다. 강정포(江汀浦)로 유입하는 하천은 도순천을 묘사한 것이다. 성천포(星川浦)의 유로는 중류에 천제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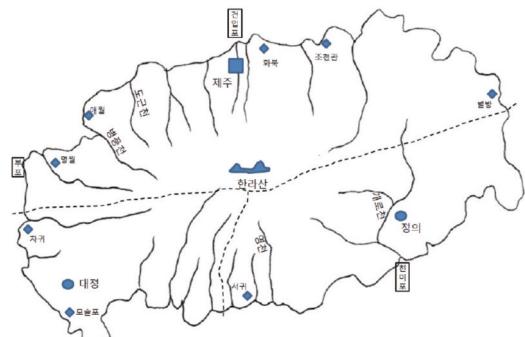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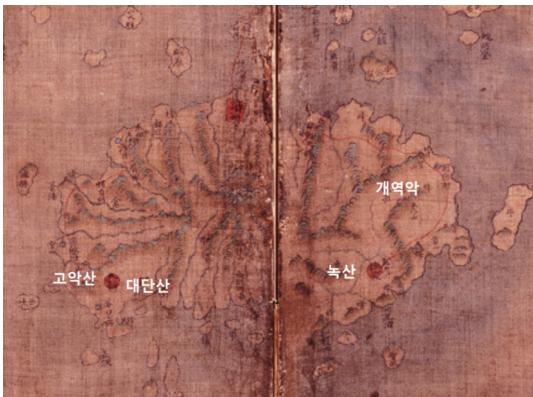


그림 3. 『조선팔도지도』(군현 경계 가필)

그려진 것으로 보아 색달천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유로가 일대에서 가장 길게 그려져 있어 창고천을 묘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호산봉(蠟山烽, 현 월라봉) 남쪽에서 ‘九弟’(‘兄弟’의 오기) 일대로 유입하는 유로는 유로가 짧은 것으로 보아 지금의 대정읍 사계리에 흐르는 소규모의 하천 유로를 그린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하지 않다. 한편 하계망이 발달하지 않은 차귀소(遮販所) 일대에서 우두포(牛頭浦)와 사귀포(蛇鬼浦)로 유입하는 유로가 그려져 있으나 위치 비정은 불가능하다.

2) 도별도

(1) 『조선팔도지도』

『조선팔도지도』에 묘사된 제주도는 그림 3과 같다. 산지 묘사를 보면 한라산로부터 청록색으로 채색된 산줄기가 해안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이는 군현지도인 『지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오름 지명은 제주목 동쪽의 개역악(開域岳), 정의현의 녹산(鹿山), 대정현의 대단산(大簞山)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해안의 봉수 지명도 ‘烽’으로만 기재되어 지명의 전부 요소가 생략되어 있다. 이외에 섬과 포구 지명이 적지 않게 생략되어 있는 점도 차이가 있다.

하천 유로는 제주목에 9곳, 정의현에 4곳, 대정현에 6곳 등 19곳으로 『지도』에 비해 정의현의 개로천과 영천에 사이에 분포하는 3곳의 유로가 생략되어 있다. 지명이 기재된 하천은 제주목의 ‘도근천’, ‘병풍천’, 정

의현의 ‘개로천’과 ‘영천천’ 등 4곳으로 『지도』와 동일하다. 포구에 지명이 기재된 곳은 제주목의 건입포, 명월진 일대의 부포(釜浦), 정의현의 개로천 하구에 천미포의 4곳에 불과하여 『지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조선팔도지도』가 『지도』를 저본으로 하였으나 산천의 묘사에서 적지 않게 편집되었음을 보여준다.

(2) 『동국팔로분지도』

『동국팔로분지도』(그림 4)에 묘사된 제주도는 동서 방향이 실제보다 길며, 한라산과 백록담이 중앙에서 좌측으로 치우쳐 있다. 산줄기의 연결성은 비교적 약하다. 오름도 제주목 동쪽의 녹산, 정의현의 성판악, 수영악 지명만이 있을 뿐이다.

하천은 청색 실선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포구 지명은 『지도』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유로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제주목 14곳, 정의현 10곳, 대정현 6곳 등 28곳에 유로가 묘사되어 있어 『지도』(22곳)와 도별도인 『조선팔도지도』(19곳)에 비해 적지 않게 추가되어 있다. 새로운 유로는 제주도 북동부 지역의 영등포, 무주포, 용두포와 정의현의 위양포, 대정현의 모슬포, 사귀포, 우두포 일대로 유입하는 하천이다. 지명은 제주목에 병풍천, 정의현에 개로천, 영천 3곳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도』에 있던 도근천 지명은 없다. 이는 『동국팔로분지도』가 『지도』를 저본으로 하였으나 하천 유로를 중심으로 내용을 추가하였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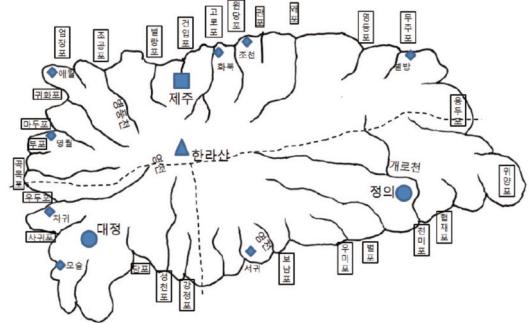


그림 4. 『동국팔로분지도』(군현경계 가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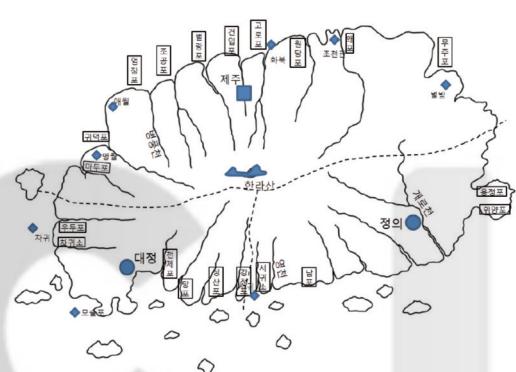


그림 5. 『청구도』

4. 19세기 대축척조선전도의 제주도 하천

1) 『청구도』

『청구도』(그림 5)에 그려진 제주도는 이전의 도별도에 비해 실제와 유사하다. 군현마다 색채를 달리하여 행정구역을 구분하였고, 제주목과 정의현, 대정현 읍치를 있는 도로는 적색으로 그려져 있다. 한라산에서 해안으로 이어지는 산지는 갈색으로 채색된 줄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연결성은 약하다. 그러나 오름 지명의 숫자는 증가하여, 제주목 동쪽의 야천악, 개역악과 부인악, 대랑수산, 정의현의 녹산, 성파악(성판악의 오기), 고근산, 수영악, 대정현의 용태악 등이 새롭게 기재되어 있다.

하천 유로는 제주목 9곳, 정의현 6곳, 대정현 6곳 등 21곳에 그려져 있어, 정의현에 1곳의 유로가 삭제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군현지도인 『지도』와 유사하다.

또한 제주목의 병풍천, 정의현의 개로천과 영천천, 도근천⁵⁾의 4곳에 지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동일하다. 다만 하천이 유입하는 포구 지명은 제주목과 대정현에서는 동일하나, 정의현에는 거의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필사본)『대동여지도』

지도에 그려진 제주도의 형태는 앞의 『청구도』와 유사하다(그림 6). 갈색으로 채색된 산줄기 묘사는 이전 지도에 비해 비교적 연결성이 높으며 오름 지명도 적지 않게 추가되어 있다. 제주목 동쪽에는 부인악, 개역악, 감은악과 대랑수악을 잇는 산줄기가 있고, 한라산 북쪽에는 목밀악과 반응악, 정의현에 성판악, 수영악, 녹산과 고근산이 연결되는 산줄기가 묘사되어 있다. 대정현에는 병악과 용태악으로 이어지는 산지가 있다. 군현 경계는 점선으로 그려져 있으며, 읍치는 황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각 읍치와 관방을 잇는 도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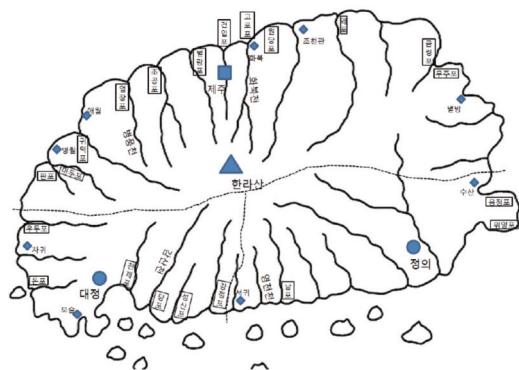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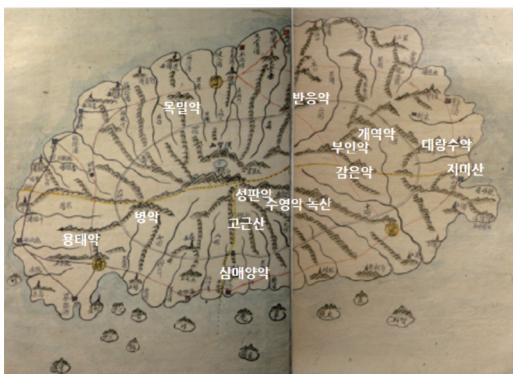


그림 6. (필사본)『대동여지도』



그림 7.『동여도』

각각 내륙과 해안에 적색 실선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그려진 잣성은 겹선으로 묘사되어 있다.

산줄기 사이로 묘사된 하천 유로는 제주목에 14곳, 정의현 7곳, 대정현 7곳 등 28곳이 있어 『청구도』에 비해 6곳이 추가되어 있다. 이들은 제주목 동쪽의 금령포와 무주포 일대, 서쪽의 판포 일대에서 4곳, 정의현의 남포, 대정현의 돈포 일대로 유입하는 하천이다. 유로수가 유사한 『동국팔로분지도』(30곳)와 비교해 볼 때, 정의현 동쪽 해안의 유로가 3곳이 삭제되어 있고, 대정현 남쪽에 한 곳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지명은 제주목의 화북천과 병풍천, 정의현의 영천천, 대정현의 감산천 4곳이다. 이 중 화북천과 감산천은 이전 지도에 나타나지 않았던 지명이다. 한편 정의현에서 개로천 지명은 누락되어 있다. 이들 내용은 이 지도가 『청구도』보다는 도별도인 『동국팔로분지도』와 더 유사함을 보여준다.

3)『동여도』

『동여도』(그림 7)에 그려진 제주도 형태는 이전 지도에 비해 남-북 방향의 폭이 비교적 길다. 갈색으로 채색된 산줄기는 한라산에서 해안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새로운 오름 지명들이 추가되어 있다. 제주목의 도전약, 담인약, 봉개약, 표약, 금물덕, 정의현의 성불약, 수항약, 현라산, 대정현의 시목약이 이에 해당한다. 도로는 읍치를 잇는 직선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관방을 연결하는 도로가 해안을 따라 적색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목장 10소를 연결하는 잣성이 적색의 겹선으로 그려져 있어 이전 지도의 내용과 유사하다.

하천 유로수는 제주목 14곳, 정의현 9곳, 대정현 8곳 등 모두 31곳에 그려져 있어 (필사본)『대동여지도』(28곳)와 비슷하다. 추가된 유로는 정의현 동남쪽의 용두포(龍頭浦)와 오조포(吾照浦) 해안의 2곳, 대정현의 모

슬포 일대에 1곳이다. 그러나 유로의 형태를 보면 제주목 동쪽의 왜포와 서쪽의 별랑포, 대정현의 감산포로 유입하는 하천의 경우 2~3개의 지류가 중류에서 합류하여 해안으로 유입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다른 지도에서 단일한 직선 유로로 그려진 것과 차이가 난다.

하천 지명은 14곳에 기재되어 있어 이전 지도의 4곳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새롭게 기재된 지명은 제주목의 무수천, 정의현의 여결천, 부등지천, 호촌천, 홍로천, 대정현의 가내천, 색달천, 산방천으로 대부분 제주도 남쪽의 정의현과 대정현에 분포한다. 이는 이 지도가 (필사본)『대동여지도』를 바탕으로 유로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면서, 지명을 상세하게 추가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동여도』에 묘사된 내용은 모슬포로 유입하는 하천 유로와 방면 지명, 과원(果園)이 삭제된 것을 제외하면 목판본『대동여지도』와 동일하다.

5. 하천 유로의 지도별 비교

표 3은 분석 대상 지도에 묘사된 하천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지도는 유로수로 볼 때 2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유형은 22곳 이하의 유로가 그려진 지도로 군현지도인 『지도』(22곳), 도별도로 『조선팔도지도』(19곳), 조선전도로 『청구도』(21곳)가 해당된다. 이들 유형에서 내용 차이를 보면, 『조선팔도지도』에서는 『지도』에 그려져 있던 정의현 동남쪽의 별포 일대로 유입하는 3개 유로가 삭제되어 있다. 『청구도』에도 정의현 남

쪽의 하천이 삭제되어 있어, 제주도 동쪽과 남쪽 일대를 중심으로 내용 수정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둘째 유형은 28곳 이상의 유로가 그려진 지도로, 도별도인 『동국팔로분지도』(30곳)와 (필사본)『대동여지도』(28곳)와 『동여도』(31곳), 『대동여지도』(30곳)가 해당된다. 첫째 유형에 비해 새로운 유로가 그려진 곳은 제주목 동쪽의 관포와 무주포, 영등포 일대와 서쪽의 감목포, 정의현 동남쪽의 용두포와 협재포 일대로 지금은 소규모 하계망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지도의 하천 지명 수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 『동여도』 이전 지도에서는 제주목의 도근천·병풍천·화북천, 정의현의 개로천·영천천, 대정현의 감산천을 중심으로 3~4곳의 지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동여도』의 하천 지명은 13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는 『동여도』 제작을 계기로 지명이 적지 않게 보완되었음을 보여준다. 목판본『대동여지도』는 하천 지명이 ‘여질결천’이 여결천으로 수정되고, ‘산방천’이 추가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다.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의 하천 지명과 관련하여 『지리지』 수록 내용은 표 4와 같다. 제주목 4곳의 지명 중 ‘화북천’은 ‘별도천’으로 표기된 『승람』을 제외하고 모든 지리지에 동일한 지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지도에서는 (필사본)『대동여지도』에 처음 나타난다. ‘조공천’은 이전 지도에는 ‘도근천’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동여지도』에서만 ‘조공천’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 지리지에서는 ‘조공천’으로 나타나고, 『승람』에만 ‘도

표 3. 지도별 유로수와 지명

| 유로수 | 지도 | 유로수 | | | | 하천 지명 | | | |
|-----------|------------------------|------|------|-----|-----|-------|----------------------|---------------------------|-----------------------------|
| | | 전체 | 제주 | 정의 | 대정 | 전체 | 제주 | 정의 | 대정 |
| 22곳 이하 | 『지도』 | 22 | 9 | 7 | 6 | 4 | 都近川, 屏風川 | 蓋老川, 灵泉川 | - |
| | 『조선팔도지도』 | 19 | 9 | 4 | 6 | 4 | 都近川, 屏風川 | 蓋老川, 灵泉川 | - |
| | 『청구도』 | 21 | 9 | 6 | 6 | 4 | 都近川*, 屏風川 | 蓋老川, 灵泉川 | - |
| 28곳 이상 | 『동국팔로분지도』 | 30 | 14 | 10 | 6 | 3 | - , 屏風川 | 蓋老川, 灵泉川 | - |
| | (필사본)『대동여지도』 | 28 | 14 | 7 | 7 | 4 | 禾北川, 屏風川 | 靈泉川 | 紺山川 |
| | (『동여도』) (목판)『대동여지도』 | (31) | (14) | (9) | (8) | (13) | 禾北川, 屏風川 無愁川, 朝貢川 | 蓋老川, 灵泉川 不等之川, 餘叱結川 | 紺山川 (山房山)山房川 加内川, 塞達川 |
| | | 30 | 14 | 9 | 7 | 14 | | | |

* 규장각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장서각본 등 일부 판본에서는 지명이 기재되어 있음.

표 4. 지리지에 수록된 하천지명

| 『동여도』 『대동여지도』* | 『대동지지』 | 『여지고』(18C) | 『탐라지』(17C) *『남한박물』(1704) | 『동국여지승람』(16C) |
|-------------------|--------------|-------------|-----------------------------|---------------|
| [제주목] | | | | |
| 禾北川 | 禾北川(東 13리) | 禾北川(東 15리) | 禾北川(東 13리)* | 別刀川(東 8리) |
| - | 屏門川(西 성외) | 屏門川(西 성아래) | 屏門川(西 성외)* | 屏門川(城 서쪽) |
| - | 山底川(城 동쪽) | - | 山底川(城 東 1리)* | 山底川(城 동쪽) |
| - | 大川(西 3리) | 大川(西 2리) | 大川(西 2리) | 大川(西 3리) |
| 朝貢川 | 朝貢川(西 20리) | 朝貢川(西 21리) | 朝貢川(西 20리) | 都近川(西 18리) |
| 無愁川 | 無愁川(西南 18리) | 無愁川(西南 18리) | 無愁川(西南 18리) | - |
| - | 感恩德川(西 90리) | - | - | 甘勿德川(西 90리) |
| - | 松淡川(東 13리) | - | - | 松淡川(東 13리)* |
| 屏風川 | 屏風川(西 35리) | - | - | - |
| [정의현] | | | | |
| 餘結川 | 餘結川(西 18리) | 餘結川(西 18리) | 餘結川(西 18리) | 餘叱結川(西 18리) |
| 蓋老川 | 蓋老川(東 城外 2리) | - | 介老川(東 3리)* | 介老川(城 밑) |
| 不等之川 | 不等之川(西 30리) | 火等川(西 35리) | 不等之川(西 25리) | 火等枝川(西 30리) |
| 靈泉川 | 靈泉川(西 60리) | 靈泉川(西 50리) | 靈泉川(西 55리)* | 靈泉川(西 52리) |
| 狐村川 | 狐村川(西 50리) | 狐村川(西 50리) | 狐村川(西 52리) | 狐村川(西 55리) |
| 洪爐川 | 洪爐川(西 70리) | 烘爐川(西 70리) | 洪爐川(西 72리)* | 洪爐川(西 65리) |
| - | - | 水望川(西 30리) | 水望川(西 30리)* | - |
| [대정현] | | | | |
| 加內川 | 大加內川(東 50리) | 大加內川** | 大加來川(東 50리)* | 加內大川(東 50리) |
| | 小加內川(東 50리) | - | 小加來川(東 52리)* | 加內小川(東 50리) |
| 塞達川 | 塞達川(東 35리) | 塞達川(東 35리) | 塞達川(東 35리)* | 塞達川(東 35리) |
| 紺山川 | 紺山川(東 25리) | - | 紺山川(東 25리)* | 紺山川(東 15리) |
| (미기재) 山方川 | - | - | - | - |

* 음영은『동여도』와『대동여지도』에 처음 나타나는 지명임
(자료) 김기혁(2018)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근천'으로 표기되어 있다. '무수천'은『탐라지』와『여지고』에 나타나며 이전 지도에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던 지명이다. '병풍천'은 이전에 대부분 기재되나 지리지에서는『대동지지』에 처음 나타난다.

정의현의 '여결천'은 대부분 지리지에 수록되어 있다.『동여도』에 처음 기재된 '餘叱結川' 표기는『승람』과 동일하다. '蓋老川'은 이전의 대부분 지도에서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으나 지리지에는 '介老川'로 수록되어 있다. '부등지천', '호촌천', '홍로천'도 처음 나타난 지명이나, 대부분의 지리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표기만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영천천'은 이전의 지도와 지리지에 모두 수록된 지명이다.

대정현의 대부분 하천 지명은 지리지에 근거하고 있다. 가내천은 지리지에서 '대·소가내천' 2개의 지명으로 되어 있다. '색달천'도 대부분 지리지에 수록되어 있다. '감산천'의 경우 (필사본)『대동여지도』에 처음 나타나나 이전의 지리지에 수록되어 있다. '산방천'은 유일하게 이전의 지도와 지리지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대동여지도』에만 처음 기재된 지명이다.『동여도』에는 동일한 위치에 '산방산'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지도에서 산방천 동쪽에 묘사된 감산천은 지금의 창고천을 그린 것으로 대정현 일대에서 유로가 가장 긴 하천이다. 이 하천은 현재 한라산 서쪽 산록의 삼형제 오름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흘러 병약 동쪽을

지나 화순항에서 바다로 유입한다(한국수자원공사 2009). 17~18세기에 제주도를 그린 지방지도에서 '창고천' 유로가 묘사되고 유역에 '감산' 마을이 있어 위치 비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동여지도』에서 '감산천'과 대정현 사이의 유로는 창고천이 아닌 대정읍 사계리 일대의 소규모 하천에 불과하다. 이는 『대동여지도』를 제작하면서 이전 지도에 그려진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지명이 불확실한 유로에 대해 '산방산' 지명을 이용하여 '산방천'으로 판각한 결과로 보인다.

지도와 지리지에서 수록 여부를 바탕으로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의 기재 지명을 분류하면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 유형은 이전의 지도와 지리지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지명이다. 제주목의 화북천과 조공천, 정의현의 개로천, 영천천, 대정현의 감산천이 해당된다. 둘째 유형은 지리지에 있었으나 이전 지도에 기재되지 않았던 지명이다. 제주목의 무수천, 정의현의 연결천, 부등지천, 호촌천과 홍로천, 대정현의 가내천, 색달천이 해당되며, 이들 하천의 유로 정보는 대부분 지리지의 기사 내용에 근거한다. 셋째 유형은 지리지에 관련 내용이 거의 없는 지명이다. 제주목의 '병풍천'과 대정현의 '산방천'이 해당된다. 이 중 '병풍천'은 지리지에 수록되지 않다가 『대동여지도』에 처음 나타난다. 이 지명은 제주도 지방 지도에도 없던 지명이나, 『지도』에 처음 기재된 이후 대부분의 지도에 수록되어 『대동여지도』까지 이어진다.

한편 제주목의 병문천, 산저천, 대천, 감은덕천, 송담천, 정의현의 수망천의 경우 지리지에 기사가 있으

나 지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하천 지명들이다. 이들은 18세기에 그려진 대부분의 제주도 지방지도에 유로와 함께 지명이 기재되어 있어 위치 비정이 가능하나(김기혁 2018), 20리방안 군현지도 이후에는 지도에 기재되지 않는다.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19세기 제작된 대축척조선전도의 제주도에 묘사된 하천 유로의 비교 분석을 통해 18세기 20리방안 군현지도에서 필사본 조선전도를 거쳐 목판본 『대동여지도』로 이행되면서 나타난 지리 정보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그림 8과 같다.

군현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도별도와 조선전도는 하천 유로 내용에서 볼 때 3유형으로 구별된다. 첫째 유형에는 『조선팔도지도』와 『청구도』가 속한다. 이들 지도에는 하천 유로수가 각각 19곳과 21곳으로 유사하며 기재 지명은 4곳으로 동일하다. 둘째 유형은 『동국팔로분지도』와 (필사본) 『대동여지도』이다. 유로수가 각각 30곳, 28곳으로 첫째 유형에 비해 유로수가 증가하나 기재 지명은 3~4곳으로 유사하다. 셋째 유형은 『동여도』와 (목판본) 『대동여지도』이다. 유로수는 각각 31곳, 30곳으로 둘째 유형과 비슷하나 지명은 13~14곳이 기재되어 있다. 새롭게 추가된 지명은 대부분 지리지에 근거한다. 산방천 등 일부 하천 유로에는 지리지에 수록되지 않은 지명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 지명은 이전 지도의 내용을 답습하는 모습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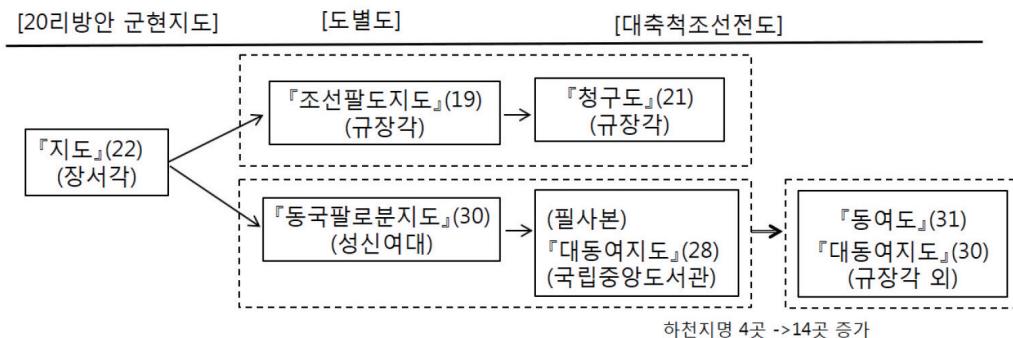


그림 8. 제주도 하천 유로에 따른 지도 계열과 『대동여지도』(괄호안은 유로수)

께 필사본에서 목판본 지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편집 내용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목판본)『대동여지도』의 유로 내용이 『청구도』보다는 도별도인 『동국팔로분지도』와 (필사본)『대동여지도』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래의 지도 발달 설명에서 새로운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청구도』는 2책 혹은 4책의 책자식으로 제작된 것이며, 『동여도』와 『대동여지도』는 분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분첩식(18)첩으로 구성된 (필사본)『대동여지도』내용이 『동여도』(23첩)와 유사한 것은 이 지도가 책자식에서 분첩식 조선전도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의 지도임을 보여준다. 이후 지명 보완 등 내용 편집이 수반되어 『동여도』와 함께 『대동여지도』가 22첩의 목판본으로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축척조선전도의 정점에 위치한 『대동여지도』에서 이전 지도와는 다르게 하천이 상세하게 묘사된 것은 지도가 지향하였던 실용성을 시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도가 당시 사회에 널리 보급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동여지도』는 18세기에 만들어진 군현지도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편집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이다. 저본이 된 군현 지도가 그 이전에 그려진 지방지도의 내용을 근거로 만들어 졌음을 볼 때, 이들 지도들 간의 관계는 지도 해석에 한결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동여지도』에 묘사된 산줄기와 하천의 독특한 모습은 지도에 그려진 오름과 하천 지명의 변화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수반되어야 설명이 가능하다. 이를 밝히지 못한 것은 본 논문의 한계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별도의 과제로 남긴다. ■

註

- 1) 『旅菴遺稿』, 「東國輿地圖跋」, 庚寅年[1770년, 영조 46]에 왕께서 東國文獻備考를 편찬하게 하였다. (중략) 6월 6일에 시작하여 8월 14일에 일을 마쳐서 바쳤다. 列邑圖 8권, 八道圖 1권, 全國圖 족자 1축이다. 周尺 1寸을 1線으로 하여 縱線 76개, 橫線 131개였다. 왕께서 또한 명하여 같은 수를 東宮에 바치게 하였다. 왕께서 친히 小序를 지었다....」
- 2) 『조선지도』, 『팔도지도』(규장각)에는 전라도편이 결질되어 있다.

- 3) 『해동여지도』는 군현경계가 묘사되어 있는 등 일부 내용에서 다른 판본과 차이가 나타난다.
- 4) 이 유로에 대해 오창명(2008)은 효돈천으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 5) '도근천'은 규장각본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장서각본 등 다른 판본에서 기재되어 있다.

참고문헌

- 대동여지도(국사편찬위원회 외)
 대동여지도(필사본)(국립중앙도서관)
 동국팔로분지도(성신여대박물관)
 동여도(규장각 외)
 동여(국립중앙박물관)
 조선도(일본오사카부립도서관)
 조선팔도지도(규장각)
 지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청구도(규장각 외)
 대동지지(19세기)
 동국문화비고(18세기)
 동국여지승람(16세기)
 탐라지(이원진, 19세기, 김상조역, 199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고광민, 2003, 제주도 포구 연구, 도서출판 각.
 국토교통부, 2011, 한국하천지명사전.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한국지도학발달사, 127-143.
 김기혁, 2007, “조선후기 방안식 군현지도 발달 연구 – 『동국지도3』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자리 19(1), 19-36.
 김기혁, 2015, “『황여전람도』, 『조선도』의 모본 지도 형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1), 153-175.
 김기혁, 2018, “17~18세기 제주도 고지도의 하천 묘사에 나타난 지도 계열 연구,” 문화역사자리 30(2), 46-74.
 배우성, 2006, “대동여지도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과학사학회지 28(1), 117-138.
 양보경, 1995, “『대동여지도』를 만들기까지,” 한국사시 민강좌, 일조각.
 오상학, 1994,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관한 연구 -제

- 작과정과 사본들의 계보를 중심으로,” 지리학
논총 24, 133-155.
- 오상학, 2004,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시계열적 고
찰,” 탐라문화 24, 131-152.
- 오창명, 2008, “『대동여지도』(1861)의 제주 지명,” 제주
도연구 31, 87-126
- 이기봉, 2008, “정상기의『동국지도』수정본 계열의 제
작 과정에 대한 연구,” 문화역사자리 20(1), 56-
88.
- 이기훈, 2018, “근대신화의 역설-고산자 김정호와 대
동여지도의 경우,” 역사비평 123, 340-364.
- 이윤석, 2013, “상업출판의 관점에서 본 19세기 고지
도,” 열상고전연구 38, 63-99.
- 임종옥·김기혁, 2010, “목판본『대동여지도』와『청구도』
의 지명 비교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249-264.
- 장상훈, 2007, “조선 후기 대축척 조선전도의 발달과
『동여』,” 문화역사자리 19(1), 37-57.
- 장진숙·김기혁, 201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필사본
『대동여지도』연구,” 한국고지도연구 6(2), 19-
50.
- 제주특별자치도, 1997, 제주의 오름.
- 제주도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6, 한라산의 하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제주의 옛지도.
- 최남선, 1925, “고산자를 회함(상·하),” 동아일보(1925,
10월 8, 9일).
- 한국수자원공사, 2009, 한국하천일람.
- 渡辺一郎·鈴木純子, 2010, 図説伊能忠敬の地図をよ
む, 東京 : 河出書房新社.
- 동경국립박물관, 2003, 伊能忠敬と日本圖 :江開開府
400年記念特別展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koreanhistory.or.kr>)
- 교신: 김기혁,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자메일: kbbkim@pusan.ac.kr. 전
화: 051-510-2660.
- Correspondence: Kim, Ki-hyuk,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Geumjeong-gu, Busan,
46241, Republic of Korea. e-mail: kbbkim@pusan.ac.kr. phone:
+82-51-510-2660.
- 투고일 2018. 11. 27
수정일 2018. 12. 18
채택일 2018. 12. 20

